

통권 1-23호  
2007년 8월 17일 금요일  
더불어 사는 한인들의 벗 ◆nekorean@gmail.com  
tel:617.820.5128 486 Washington St., Canton, MA 02021



#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건물  
800-274-8154, 978-239-0141  
Clarapaik.com / clara.paik@remax.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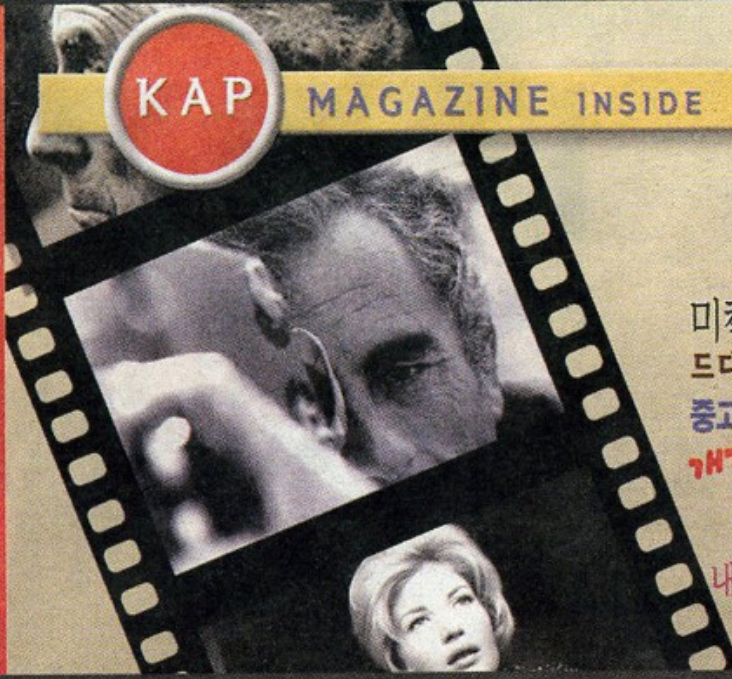
# Kap

뉴잉글랜드 **한인**  
**연합신문**  
nekorean.com

The New England Korean Alliance Press

KAP

MAGAZINE INSIDE 15p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를 추모하며  
드디어 철학으로 밥 먹고 삽니다  
중고차를 잘 고르는 팀 2

개강철 "동네" 특집

"한인타운은 없다. 그러나 일스턴이 있다"

내 아이의 예절점수는?



# 과기협, "한인 교수님들과의 대화" 행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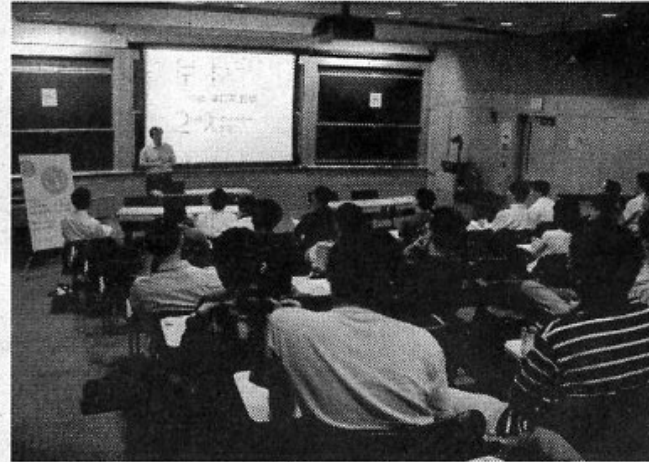
## 교수들과 구체적이고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지난 8월 13일 월요일, MIT에서는 KSEA-NE(재미과기협 뉴잉글랜드 지부, 지부장 이치완)와 MIT KGSA(한인 대학원 학생회, 회장 류상진) 주최로 "한인 교수님들과의 대화"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MIT 및 하버드, 터프스, 유메스, 노스이스턴 대학 등에서 40여 명의 박사 과정 학생들 및 포스트 닥터들이 참석을 하였다. KSEA-NE와 MIT KGSA의 임원인 이재형씨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KAIST 경종민 교수가 기조 연설을 하였다. 경종민 교수는 "직업, 결혼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교수로서의 삶을 선택하기 전에 본인의 성향에 대해서 미리 파악해봐야 하고, 교수라는 직업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한양대학교 강영종 교수와 터프스 대학의 이현민 교수는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에서의 임용과정 및 이를 위해 준

비해야 할 것들을 개인적인 경험 및 객관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었다. 성균관대학교 전병우 교수와 한밭대학교 오용준 교수는 교수로서의 삶이 가지는 실제의 모습을 소득 수준 및 일과 생활에서의 시간 배분 측면, 삶을 바라보는 자세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었다.

KSEA-NE 김도영 부회장이 지부 활동에 관하여 소개하는 시간이 잠시 있었고 이어 질의 응답 시간이 진행되었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교수 임용과 시기, 문제점 등에 대하여 교수와 학생들 간에 진솔하고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갔다.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무려 다섯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이 유익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능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행사에서 사용된 파워포인트 자료들은 KSEA-NE 홈페이지([www.kseane.org](http://www.kseane.org))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KSEA-NE의 Career Development Workshop Series의 두번째 행사인 "한인 연구원들 및 엔지니어들과의 대화"도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 이재형 (yijh00@mit.edu, 617-452-4063)